



15일 오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에 선출된 한명숙 후보가 최고위원들과 함께 꽃다발을 든 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대표 한명숙

최고위원 문성근·박영선·박지원·이인영·김부겸 선출

올해 총선·대선을 이끌어갈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당대표에 한명숙 후보가 선출됐다. 최고위원에는 문성근·박영선·박지원·이인영·김부겸 후보 등 5명이 뽑혔다.

〈관련기사 3편〉
15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 투표 결과, 한명숙 후보가 전체 득표율 24.5%를 차지해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어 문성근(16.68%)·박영선(15.74%)·박지원(11.97%)·이인영(9.99%)·김부겸(8.09%) 후보는 최고위원으로 뽑혔다. 이화영·이강래·박용진 후보는 각각 7%·3.73%·2.76%의 득표율을 기록, 새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이로써 옛 민주당 출신 후보는 5명

이, 시민통합당 후보는 1명이 새 지도부에 들어갔다. 새 지도부에 친노 세력이 대거 입성하면서 이들의 입지는 강화되는 반면, 호남 중심의 옛 민주당 인사들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박지원 최고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도부 모두 비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과거 호남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전국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중간 세대 의원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자연스런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임 한 대표의 수락 연설에서 "80만 시민과 당원·대의원이 뽑은 최초의 민주통합당 대표직을 엄숙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한다"며 "2012년은 구시대와 새 시대를 가르는 분

기점이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대표는 특히 "혼신의 힘을 다해 승리의 역사를 써나갈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며 "다수가 행복한 경제 민주화, 국민이 원하는 혁신을 하겠다. 어떠한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겠다. 정적과 노선을 혁신하고 공천 혁명을 통해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시민의 참여를 답을 수 있는 열린 정당, 소통하는 정당이 되겠다"면서 "SNS 본부를 두고 젊은 민주통합당을 만들겠다.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새 지도부는 조만간 총선거화단을 발족한 뒤 이달 안에 공천심사위원회

를 꾸리는 등 총선 총력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경선 과정에서 '공천혁명', '공천혁신'을 강조한 만큼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한편, 이날 대의원 투표에서는 대의원 선거인단 2만1000명 중 1만2759명(60.4%)이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전날 실시한 현장투표(당원·시민)에서는 유권자 16만7000명 중 3만4829명(20.8%)이 투표에 참가했다.

지난 9일부터 실시한 모바일 투표는 대상자 59만8000명 중 49만6065명(82.9%)이 투표에 참여했다. 76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당원 선거인단 선거의 최종투표율은 69.2%를 기록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SNS 활용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 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결정, 선거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

상된다. <관련기사 4편〉
선관위는 지난 13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 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준중, 이런

결정을 내렸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언제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신대학교
편입생모집
~1월17일(화)까지
www.kwangshin.ac.kr
입학문의 062)605-1114

여수박람회 D-117

입장권 예매 판매목표 0.6%

기업스폰서도 미흡 '흑자 박람회' 비상

여수세계박람회가 11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입장권 판매 실적이 극히 저조해 '흑자 박람회'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불 조성 및 입장권 예매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여수 세계박람회는 현 정부의 임기 내 치러지는 가장 큰 국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입장권 예매율이 목표로 삼은 800만장의 0.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승용 민주당(여수 을) 의원의 "여수박람회가 목표 0.6%에 미달한 입장권 판매액은 800만장(1832억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말까지 판매할 입장권은 고작 5만장으로 판매액도 13억49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법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전에 예매하는 문화가 국내에 아직 정착하지 않은데다, 본격적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진한 판매 실적을 끌어올릴만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기업들의 참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밝힌 박람회 공식 후원 기업은 19개사로, 이들이 약속한 후원금은 대략 567억원 규모다.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유치 당시 세웠던 목표액(960억)을 경기 침체 등을 반영해 410억으로 낮췄다고는 하지만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축제로는 꼽히는 입장권 예매율이 0.6%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들의 관심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많다.

그나마 현대차·GS칼텍스·롯데·아시아나 등을 제외하면 참여하는 대기업들도 많지 않아 '내 집' 안방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세계 106개국이 참여하고 1047만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가 국민적 불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여수박람회 자치단체

지원협의체'를 구성, 시·도별 홍보 지원, 박람회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 ▲홈페이지 배너 설치, 전광판 활용 등 각 지자체 홍보수단을 통한 박람회 홍보 ▲자치단체별 외국 자매결연 자치단체 초청 행사와 박람회 관람을 연계하는 등 국내외 행사 연계 개최 ▲각종 워크숍 및 행사 여수 개최 등 국민적 불 조성 ▲전국 자치단체의 간담회 등을 활용한 여수박람회 입장권 사전 예매 안내 및 홍보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9일부터 광주·전남 15개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유도로 육교(5개소) 등에 박람회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21일에는 광주역과 광주중합버스터미널에서 '여니·수니와 함께하는 고향가는길' 행사를 개최하는 등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펼쳐 개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설 3154만명 대이동 작년보다 2.1% 늘어

올해 설 연휴에는 작년보다 많은 인원이 '민족대이동'에 나설 전망이다. 귀성길은 설 전날, 귀경길은 설 당일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은 전국 6800기구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여 오는 20~25일 전국의 설 연휴 귀성·귀경 이동 인원이 지난해보다 2.1% 증가한 315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간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353만대로 지난해보다 1.1% 늘

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귀성길은 설 하루 전날인 22일 오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이 31.5%로 가장 많았고, 귀경길은 설 당일인 23일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답변이 34.0%로 가장 많았다.

고속도로를 이용해 주요 도시로 이동할 때 걸리는 최대 소요시간(승용차 기준)은 귀성길이 서울~광주 5시간40분, 서서울~목포 6시간40분으로 추산됐다.

귀경길 최대 소요시간은 대전~서울 4시간20분, 광주~서울 6시간30분, 목포~서서울 8시간50분 등 대체로 귀성길보다 오래 걸린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 60주년
2월7일 접수 마감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온실가스 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청안내

교육일정 및 장소 2012. 1월 30일 ~ 2월 24일 (월~금 10:00~17:00) 총 120시간
광주 상공회의소 지하 교육장 (광주 서구 농성2동)

- 배경**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온실가스로 인한 범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
- 목적** 기존 전문 온실가스 양성 프로그램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바 방화중 지방소재 미취업자들에게 무료 교육기회 제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 지방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접수기간** 2012년 1월 9일(월) ~ 2012년 1월 18일(수)
- 신청기간**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이수자 누구나(환경 및 에너지 관련학과 우대)
- 모집인원** 40명 정원
- 선발심사** 신청자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이 관련성 등 최소한의 선정절차를 거쳐 선발
- 신청** 우편 또는 e-mail로 신청서 접수

홈페이지 (www.kjepa.or.kr 등)의 참가신청서 작성하여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2동 652-1 (광주·전남 환경보전협회)
- E-mail : kjepa@daum.net

- 교육내용** 기업에서 즉시 활동 가능한 전문 커리큘럼 구성
- 교육특전**
 - 무료 및 간식,중식제공
 - 녹색기업, 온실가스 관리 관련 업체등에 취업 알선 협조요청
 - 지자체 및 기업에 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교육수료생 소개
 - MBTI(성격유형검사)결과 등을 활용한 직무능력 상담
 - 협회의 구인 구직란을 통한 상호 구인·구직 알선 및 취업박람회 안내
 - 환경분야 취업방향 및 동향과 환경관련 업체 정보제공
 - 기업에서 듣는 온실가스 관리 기회 제공
 - 지역내 그린리더 활동의 기회 제공
 - 수료시 한국환경공단 명의의 수료증 발급

문의처 ☎062)369-5580
www.kjepa.or.kr kjepa@daum.net / ggedu@epa.or.kr

주최 M&E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주관 광주·전남환경보전협회